

 <b>인천광역시</b>	<b>보도자료</b>		<b>재외동포청 최적지</b> <b>인천뿐입니다</b>
	배포일자	2023년 4월 7일(금) 총 3매	
담당 부서	교통안전과	담당자	• 교통안전팀장 박경수 ☎440-3861 • 담당자 김장기 ☎440-3862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시, 시민 누구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보호막 강화**

-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... 안전시설 확충 등 4개분야 37개 세부 사업 담겨 -
- 노인보호구역 19개소 추가지정·무인단속장비 40대 설치 등 고령자 사고 예방 중점 추진 -

인천시가 더욱 안전한 교통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 18% 감소를 중점 목표로 제시한 ‘2023년도 교통안전 시행계획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.

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2,5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▲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한 ‘교통안전 시설 확충’ ▲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위한 ‘보호구역 안전 강화’ ▲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통한 ‘교통안전 의식 개선’ ▲교통수단 점검과 단속을 통한 ‘예방중심 안전관리’ 등 4개 분야에 대한 3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특히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령대별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(33%)을 차지한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.

우선 고령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19개소를 추가 지정해 208개로 늘리고, 그동안 미설치됐던 노인보호구역 내 무단속장비를 최초로 40대 설치할 계획이다. 또 여성운전자회 회원으로 구성된 교통안전리더들은 약 6천여명의 고령자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 실시하는 한편,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인원도 7,800여명으로 확대 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.

아울러,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할때는 인천의 양호한 교통안전 수준과 교통안전 환경 조성 노력을 함께 알려 시민들의 우려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.

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“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 조성을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며, “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, 누구나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교통안전 행동을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한편,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통계(잠정)에 따르면, 지난해 인천에서 8천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3.5명(전국 평균 5.3명)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다. 또 차량 1만대 당 사망자는 0.6명(전국 평균 1.0명)으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.

또한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‘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’ 결과에서도 전국 3위(특·광역시 1위)라는 우수한 순위를 기록해 인천시민의 높은 시민 의식을 증명했다.

<관련사진>



노인보호구역 사진(중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)



노인보호구역 사진(중구 예지요양원)



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참고사진



여성운전자회 회원 대상 교통안전리더 양성 사진